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vol. 8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이해선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

- _ 구술 녹취문
- _ 이해선 연보
- _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연혁
- _ 구술자 연보
- _ 참고 문헌 목록
- _ 원문 자료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사진사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 1월 가현문화재단에서 설립한 학술연구기관입니다.

발행 가현문화재단
 주소 138-724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4 한미타워 19층
 전화 02-410-9123
 팩스 02-418-1316
 웹사이트 <http://photomuseum.or.kr>
 이메일 research@photomuseum.or.kr

발행인 송영숙
 기획 한국사진문화연구소
 편집인 최봉림, 김소희, 장정민
 녹취초교 정은정
 디자인 한스그라픽, 김진득, 이지원
 출력인쇄 그래픽코리아
 발행일 2014년 7월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원문 자료 및 참고 자료 제공에 협조해주신 김완기, 이길주, 이우백, 안장현 님과 동아일보사, 국립현대미술관에 감사드립니다.

© 2014 Korea Institute of Photography and Culture. All rights reserved.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의 저작권은 한국사진문화연구소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해당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or utiliz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s.

ISSN 2093-2731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한국 근현대 사진사와 관련된 사진 및 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기증된 자료는 사진문헌의 부재와 소실로 척박한 환경에 처한 한국사진사 연구에 귀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Hanmi Science Co., Ltd.**





목 차

5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8호를 발간하며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이해선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

7 구술면담 개요 및 일정

8 일러두기

- 구술 녹취문

11 제1차 구술면담 : 이해선의 생애와 사진활동

73 제2차 구술면담 : 이해선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

- 관련 자료 소개

142 1. 이해선 연보

145 2.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연혁

153 3. 구술자 연보

155 4. 참고 문헌 목록

159 5. 원문 자료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8호를 발간하며

최 봉 립 /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소장

이번 구술 자료집의 대상을 ‘이해선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로 결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이해선 선생의 예외적인 이력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이씨 왕가의 일원이었고 명문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 출신이면서도 그는 당시 미천한 사회적 지위의 사진을 평생의 활동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그가 조직한 ‘대한사협’이 한국의 가장 오래된 사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자칫하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해선 선생과 그가 지도한 ‘대한사협’은 1960년대 이후 한국사진계를 주도하기 시작한 미술대학과 신문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했다. 미술계 출신이 아니었던 임응식 선생은 오히려 미술대학에서 사진학을 가르쳤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 역시 사진학과 교수가 되었지만, 이해선 선생의 ‘사진미학’은 짙막한 공모전 심사평과 ‘대한사협’의 ‘월례회’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사진활동을 전개한 이명동 선생과 일간지와 잡지 등에 평론을 기고했던 ‘리얼리즘’ 저널비평가들은 이해선 선생과 ‘대한사협’의 ‘예술사진’에는 긍정적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더욱이 국가공인 사진단체인 한국사진작가협회가 1961년 설립되자, 이해선 선생의 ‘대한사협’은 점차 한국 사진계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리하여 그의 발자취는 한국 미술계와 사진계의 다양한 조명을 받지 못한 채, ‘대한사협’의 추모의식 속에서만 살아남게 되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는 유족들의 기억을 통해 왕족 사진가 이해선을 그리고 ‘대한사협’의 주역들의 회고를 통해 이해선 선생의 ‘대한사협’을 뒤따라가 보았다.

좌담회는 애초에 3회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예정됐던 두 분이 건강 문제로 인터뷰에 참석할 수 없어, 좌담회는 2회로 축소되었다. 첫회는 이해선 선생의 차남인 이길주 씨와 질녀인 이남주 씨를 모시고 퇴락한 왕족의 삶과 사진가로서의 선생의 삶을 반추해 보았다. 두 분 모두는 그의 사진인생을 가풍과 인품에 연결시켜 차분하게, 그러나 가끔은 존경심에 달뜬 어조로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이길주 씨는 부친이 남기신 중요한 자료들의 복제와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셨다. 두 번째 구술은 문화재 사진작업으로 일가를 이루신 안장현 선생과 교직에 계시면서 작가로서 활동하신 김완기 선생을 모시고, 이해선 선생과 ‘대한사협’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두 분은 ‘대한사협’의 이해선 선생뿐만 아니라, 1970년대를 전후로 한 한국사진계의 이모저모를 진술해 주셨다. 특히 이해선 선생을 곁에서 모신 안장현 선생의 말씀은 이해선 선생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구술채록에 참여해 주신 네 분께 발간의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4년 7월







구술면담 개요 및 일정

본 구술면담은 이해선 선생의 생애와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한 회씩 총 두 차례의 그룹 인터뷰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구술의 대상인 이해선 선생이 작고한 관계로 선생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에 관해 구술이 가능한 구술자들을 선별하여, 사전면담을 통해 사업의 취지와 구술면담 진행사항을 설명하였다. 이후 각 구술자들의 회고가 가능한 범위를 파악하고 그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인터뷰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였다.

이번 면담에서는 그 동안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해선 선생의 사진인생과 선생이 창립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한국사진사의 대표적인 사진단체로 성장했던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당시 활동사항 등을 《국전》 등 한국사진사의 주요한 사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두 차례의 구술면담에서 공통적으로는 이해선 선생이 회화에서 사진으로 전향하게 된 계기, 사진집 출판과 개인전 개최 그리고 지도자로서의 사진계 활동 등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가족과 제자의 입장에서 들어보고자 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의 최봉림 소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인터뷰는 약 50분마다 테이프를 교체하며 휴식시간을 가진 후 재개되었다. 휴식시간 중에도 구술자들의 회상이 이어지기도 했으나 휴식시간 중의 대화는 이 자료집에 수록하지 않았다.

첫 번째 인터뷰는 2014년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30여 분 동안 한미타워 19층 한국사진문화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이해선 선생의 질녀인 이남주 선생과 차남인 이길주 선생 두 분을 모시고 이해선 선생의 조선시대 왕조의 마지막 후손으로서의 생애, 해방 후 이씨 왕조와의 교류, 동경 유학 시절의 생활, 귀국 후 사진가로의 전향, 사진 활동 외에 심취했던 취미 생활 등에 대해 회고해 들을 수 있었다. 이해선 선생의 사진가로서 구체적 활동과 업적 등에 대해서는 사진계와 밀접하지 않은 두 구술자들이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도 했다.

두 번째 인터뷰는 5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미타워 2층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다. 20세기 중후반 한국의 사회문화적 격변기를 관통해 온 한국사진계에서 설립과 해체 그리고 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성장과 위축을 경험해 온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활동 등에 대해 교직과 작가를 병행하고 대한사협 회장을 지낸 김완기 선생과 문화재 사진가이자 대한사협 회장을 역임한 안장현 선생의 구술을 통해 들어보았다. 또한 이해선 선생에게 사사한 두 구술자는 이해선 선생의 사진관, 지도자로서의 지도 방식, 사진단체 혹은 주변 사진 인사들과의 교류와 갈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회고를 들려주었다.

전 면담은 2대의 디지털 캠코더를 사용해 6mm DV 테이프 및 디지털 파일로 녹화했고 1대의 스틸 카메라로 대담 장면을 촬영했으며, 유선 마이크를 통해 대담을 녹음했다. 인터뷰 후에 녹취, 정리된 구술 내용 전문은 구술자들의 검토를 받았다. 총 세 차례로 예정되었던 이번 구술면담은 구술 예정이었던 두 분의 개인적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두 차례로 축소되어 진행되었다.

구술에서 언급되었던 작품이나 자료들의 이미지들은 구술자들의 협조를 구하여 이번 구술 녹취록과 함께 실었다.





일러두기

- 1 본 자료집은 2014년 7월 한국사진문화연구소의 일곱 번째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로 진행된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이해선과 대한사진예술가협회’의 자료집이다.
- 2 자료집은 2회의 구술 녹취 전문을 실었으며 구술자에게 자료집 발간을 허락 받았다.
- 3 인터뷰 내용 전문은 녹취 원문 중 독자의 명료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술자가 표현한 원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전달과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반복된 표현 및 중복된 어구를 일부 삭제하고 비문은 어법에 맞도록 수정하였다. 그대로 문자로 옮겼을 때 이해가 불가능한 발음과 어휘는 연구자가 수정했다.
- 4 구술자가 비공개를 원한 부분 또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공개를 보류한 부분은 이를 밝힌 후 일부 삭제했다.
- 5 인명, 지명, 단체명, 전문용어와 부연 설명이 필요한 단어들, 모호한 내용은 각주로 처리했다.
- 6 구술 내용 중 ()는 구술자의 행동, 표정, 각종 용어에 대한 부연 설명, 채록불가, 그 외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첨가한 말에 사용했으며, { }는 대화 도중의 호응에, []는 대화 중에 생략된 말을 첨가하는 데 사용했다.
- 7 구술 내용 중 발음상의 이유로 불분명한 내용의 경우 ‘채록 불가’로 밝혔다.
- 8 그 외의 문장 부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되었다.
 《 》: 전시명, 행사명, 〈 〉: 작품명, 「 」: 논문, 에세이명, 『 』: 책, 잡지, 신문명, … : 말줄임, “ ” : 대화 중 타인 혹은 자신의 말을 인용한 구절, ‘ ’ : 대화 중 과거 자신의 생각을 인용한 구절, —: 대화 중간에 앞의 내용에 부연하거나 보충하는 말이 끼어들 때.
- 9 구술의 내용은 구술자의 주관적인 기억에 따라 기록된 것으로 역사적 사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는 다를 수 있다.

